

외출 금지 풀린 시설 아동들 모처럼 웃음꽃

광주·전남 시설 33곳

자체 행사로 어린이날 즐겨

야외 체육대회·선물 증정

광주·전남 지역 아동양육시설 어린이들이 '코로나19'로 시설에 갇힌 듯 지내다 모처럼 어린이날을 맞아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외출 자제', '외부인 출입 제한' 지시를 내렸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복지시설들이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을 위한 자체 야외 행사를 마련하면서다.

5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전남 33곳(광주10곳 454명·전남23곳 974명)의 아동양육시설이 어린이날을 맞아

다양한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했다.

자치단체 주관으로 열리는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하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자치단체의 행사 자체 방침에 따라 복지시설 위주로 행사를 개최했다.

복지시설들은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행하면서 외출·외박도 전면 금지된데다, 후원자와 봉사단 방문까지 장기간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감안, 다양한 야외 프로그램으로 외로움을 타는 어린이들을 달랬다.

"시설 아이들이 일년 중 가장 기다리는 날이 '어린이날'과 '생일'인데, 올해는 시설 안에서만 있어 너무 속상했다"는 게 행사를 계획한 양육시설 관계자들 설명이다.

복지시설 대부분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데 맞춰 야외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선물도 주는 행사를 마련했다.

광주시 남구 송하동의 '신애원'의 경우 이날 오전 10시부터 원내 운동장에 게임·먹거리·놀이·플리마켓 코너 등을 마련하고 자체적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했다. 아이들은 풍선터트리기·신발 던지기 등을 통해 획득한 코인으로 먹거리 코너에서 달고나, 떡볶이, 오뎅, 구슬아이스크림 등을 사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복지시설 선생님들은 이날 아이들 얼굴에 페이스 페인팅을 해주는가 하면, 여자 어린이들에게 네일아트를 해주며 모처럼 여유를 즐겼다. 어린이들은 이날 받은 선물을 한 아름씩 끌어안고 환하게 웃으며 이곳 저곳을 뛰어다녔다.

두팔 가득 선물을 받아든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는 "학교도 못 가고 방안에만 있어 심심했는데 오늘 하루 너무 재미있었다"면서 "매일이 오늘 같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남구 봉선동 '노닐담형제의 집'도 아이들과 원내에서 체육대회를 하고 기파티를 즐기며 어린이날을 보냈다. 후원 받은 과자·장난감·옷 선물 등도 전달했다. 광주시 광산구 임곡동 '용진원'도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배달 시켜먹고 가까운 나들이를 다녀왔다. 호남대가 후원해준 빵 등도 나눠줬다.

김요셉 신애원 원장은 "시설 어린이들이 소외감과 박탈감 느끼지 않도록 신경 썼는데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양육시설 관계자도 "매년 5월은 1년 중 후원금과 후원품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달이지만 올해는 선물과 후원자들로 인해 아이들이 모처럼 즐거운 한 때를 보내는데 도움이 됐다"고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어린이날 패밀리랜드 인파 북적 어린이날인 5일 오후 광주시 북구 생용동 패밀리랜드를 찾은 시민들이 놀이기구인 '비이킹'을 타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오늘부터 생활방역...국립공원·박물관 개관, 개인 방역수칙은 지켜야

종교시설·클럽도 운영 허용

"이제는 생활방역으로 갑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6일부터는 '생활속 거리두기'로 이행하기로 했다.

정부의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차이, 일상속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해 알아본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속 거리두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학교나 어린이집 등 각

급 교육시설의 순차적 등교개학이다. 국립공원이나 실외 생활체육시설 등 거리두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실외 분산시설이나 미술관, 박물관 같은 실내 분산시설 등도 문을 연다.

당국은 스포츠 관람시설이나 국공립극장·공연장·복지관 등 실내의 밀집시설도 순차적으로 개장할 예정이다.

교회나 사찰, 성당 등 종교시설이나 헬스장 같은 실내체육시설도 원칙적으로 운영이 허용된다.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클럽 같은 유흥시설도 운영이 허용되고 위

험시설도 대부분 문을 연다. 다만 지역적 특수성과 감염 확산 여부 등을 고려해 자체 재량으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생활속 거리두기' 전환 후에도 감염통제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위험도를 평가한다.

생활속 거리두기로 바뀌더라도 개인 위생과 방역 수칙 준수는 바뀌지 않고 이어진다. 개인방역의 핵심 수칙인 아파트 집에서 쉬기, 1m 이상의 거리두기, 지속적인 소독과 기침예절 준수 등은 지켜야 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생활속 거리두기가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조금 완화된 지침이다"면서도 "개인이 지켜야 하는 방역 수칙은 동등하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되 이런 수칙은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생활속 거리두기 방역지침'과 대구시가 발표한 '대구형 7대 기본생활수칙' 등에 따르면 37.5도 이상의 발열 혹은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14일 이내에 해외여행을 했을 때에는 행사 참석이나 직장 출근 등을 자제하도록 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독도는 어제 오늘 내일도 우리 영토"

목포 문태고 동아리 '집현전'

독도수호 릴레이 챌린지 '눈길'

"독도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입니다."

전남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독도수호 온라인 캠페인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목포 문태고에 따르면 학내 독도의용수비대 동아리인 '집현전' 소속 학생들이 이코너19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독도수호의 의지를 담은 다양한 비대면 퍼포먼스를 펼쳤다.

독도수호를 위한 릴레이 챌린지로, 손글씨 쓰기과 독도 결의를 다지는 카드섹션을 통해 "독도는 우리땅"이고 "독도의 주인은

대한민국"이라는 점을 각인시켰다.

2학년 학생 전예진양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학교에 모여 활동하기가 어려웠음에도 온라인을 통해 릴레이 챌린지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우리의 노력과 정성이 열매 맺어 커져 나갈 수 있도록 매일 꾸준히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도교사와 학생들은 이를 통해 "독도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대한민국 고유영토"라는데 뜻을 같이했다.

김승만 문태고 교장은 "코로나19로 두 달간 학교문이 닫힌 상황임에도 공간의 제약에 극복하며 국토수호 정신을 길러 나가는 학생들이 참으로 기특하고 대견스럽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대, 2년 연속 '콘텐츠원캠퍼스' 사업 선정

광주대학교가 2년 연속 '콘텐츠원캠퍼스' 구축 운영사업에 선정됐다. 광주·전남 지역 대학 중 2년 연속 선정은 광주대가 유일하다.

5일 광주대에 따르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추진하는 '2020 콘텐츠원캠퍼스 구축운영 사업'에 선정돼 최대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지난해보다 6000만원이 증액됐다.

'콘텐츠원캠퍼스'는 융복합 콘텐츠 프로젝트 개발 및 프로젝트 기반 교육 운영을 통한 미래 콘텐츠산업 선도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협력체이다. 기업과 대학, 연구소, 유관기관(산·학·연·관) 등 교육을 위해 구성된 모든 원을 아우르는 광의적 개념의 캠퍼스다.

광주대는 이번 사업을 통해 VR(가상현실) 융복합 실감콘텐츠 분야의 'VR실감 콘텐츠 아시아의 부역과 음식' 과제를 수행하게 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창의형 융합 인재 배출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과 다양한 VR 실감 미디어 기반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호남대, 4개 대학과 '중외합작대학' 운영

호남대학교는 중국 교육부로부터 산동경제무역직업대학과 '경영학전공 중외합작대학운영' 인가를 취득해 올해 9월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

산동경제무역직업대학은 산동성 웨이팡시에 위치하고 있는 공립대학으로 지난 2019년 8월 호남대와 포괄적인 교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양교는 지난해 경영학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전분대·학부 연결 과정 공동양성 프로그램(중외합작대학 운영 프로그램)을 중국 교육부에 신청해 지난 4월 인가를 취득했다. 중외합작대학 프로그램은 학생모집 단계에서부터 인재 양성 방안과 교육에 이르는 전 과정을 양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호남대는 이번 산동경제무역직업대학 경영학 전공 전분대·학부 연결과정 중외합작프로그램으로 총 4개의 중외합작 대학운영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중외합작대학 운영 프로그램은 인재 양성 방안을 양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호남대는 이번 산동경제무역직업대학 경영학 전공 전분대·학부 연결과정 중외합작프로그램으로 총 4개의 중외합작 대학운영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북구, 드론 활용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광주 북구가 지적재조사 사업에 드론을 이용한다.

북구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중부지사와 협력해 드론을 활용한 최신 측량기술인 '고해상도 정밀 항공영상 촬영'을 실시, 지적재조사사업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키는 사업으로, 종이 지적도면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 간 분쟁을 해결하고 재산권을 보호한다. /정병호 기자 jusbh@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Modern Style



Classic Style



Mediterranean Sea Style



